

(다) (수) (화) (으) (로) (가) (는) (길)

고추 병해충 종합 방제 대책



사전 예방 위주의 방제로서 병충해 피해 최대한 줄이자

3

충북 농촌진흥원 식물환경과장 정인명

담 배 나 방

담배나방은 한국, 일본, 대만, 중국등에 분포하는 해충으로 고추, 담배, 토마토, 가지등 주로 가지과 작물을 가해하는데 고추재배에 있어서 해충에 의한 피해가 제일 많으며 방

제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.

1. 형태 및 가해상태

알은 우유빛 색이며 부화하기 바로 전에는 검은색을 띠운다.

유충은 몸길이가 약 40mm정도 내

◇ 고추 병해충 종합 방제대책 ◇

외이며 담녹색이고 숨구멍 주위에 백색무늬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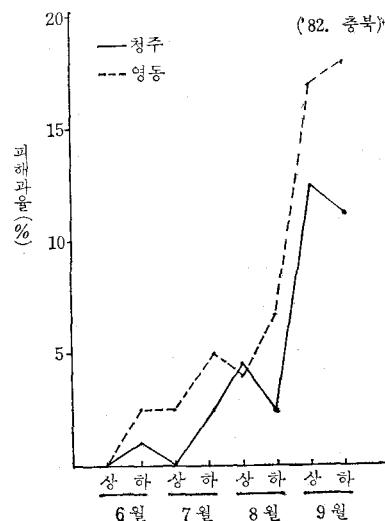
성충(나비)은 몸길이가 약 17mm 정도이며 황갈색이고 약간 녹색을 띠우고 앞날개에는 갈색의 파상무늬를 갖는다.

유충은 주로 어린잎이나 액아·꽃·어린과실등을 가해하는데 나방이 꽃봉오리에 산란하면 부화하여 애벌레가 어린 과실에 파고 들어가는데 이때 고추에 구멍이 뚫린것을 흔히 볼 수 있다. 과실에 파고 들어간 애벌레는 과실속의 씨있는 부위를 가해한다. 또한 이 상처를 통하여 무릎병을 유발시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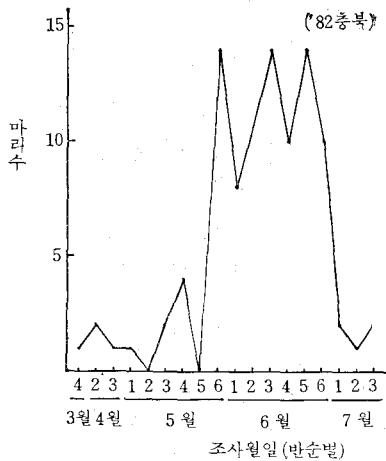
2. 생 활 사

고추의 담배나방은 1년에 2~3회 발생하는데 6월, 8월, 9월에 최성기를 이룬다. 어른벌레의 수명은 10일 전후로 나비가 된 후 3~5일이면 약간에 주로 어린잎이나 꽃봉오리 또는 과실등에 알을 낳는다. 알기간은 3~5일 정도이며 부화된 애벌레는 바로 과실속으로 파고 들어가 어린 씨를 먹고 자란다. 애벌레는 30°C에서 는 약 17일, 25°C에서는 29일 정도의 유충기간을 보내며 발육이 끝날 때 까지는 여러개의 고추를 가해한다. 노숙애벌레는 과실로 부터 기어나와 땅속으로 들어가 번데기가 된다. 번데기기간은 약 10일 정도로 1년에 2~3회 우화하나 9월 중순 이후에 번

데기 된 것은 땅속에서 월동한다. 월동한 번데기는 5~6월경에 우화하여 나비로 되어 산란하기 시작한다.



〈그림 1〉 지역별 담배나방 피해발생소장



〈그림 2〉 월동번데기의 부화발생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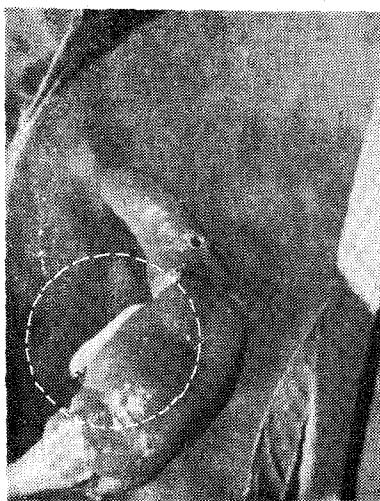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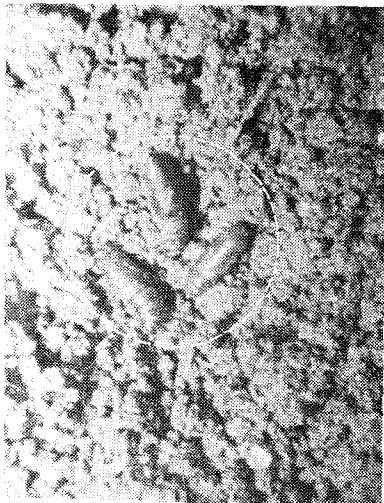


그림 3) 고추의 담배나방 피해 및 유충



〈그림 4〉 고추의 담배나방 월동번데기

고추의 담배나방에 있어서 애벌레
동안은 대부분 과실속에서 지내며

연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방제가 대단히 어렵다.

3. 방제대책

- 1) 봄에 포장을 경운할 때 토양살충제(카보입제)를 뿌려 번데기에서 나방이 되는 것을 줄여준다.
- 2) 6월 상순부터 10월 간격으로 낙크수화제 멜타린유제 프로싱유 제 등을 6~8회 정도 살포한다.
- 3) 약제 살포시 한가지 약종만 계속 살포하는 것 보다 교호로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4) 피해를 입은 과실은 조기에 제거하여 애벌레의 확산피해를 줄인다.

거세미나방

1. 발생 및 피해상태

거세미나방의 발생회수는 기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추운지방에서는 년 1회, 따뜻한 지방에서는 2~3회 발생한다.

1회 발생은 5~6월, 2회는 7~8월, 3회는 8월~10월 상순에 발생하며 성충은 낮에 잎뒤에 숨어있다가 즐기나 잎에 피해를 준다. 유충은 땅속에 숨어있다가 어린 즐기를 잘라놓는다.

2. 방제방법

- 1) 잡초를 제거하여 월동을 방지

◇ 고추 병해충 종합 방제대책 ◇

한다.

2) 파종전이나 고추 이식전에 토양살충제(지오릭스분제, 폭심분제) 등을 살포한다.

3) 고추 피해주가 생기면 즉시 그 자리를 파서 애벌레를 잡아준다.

종이 어린잎 뒷면에 붙여 양분을 흡수하며 식물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착과에도 영향을 준다. 또한 바이러스를 매개하여 전출한 고추바이러스병과 같은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.

진 뒷 물

1. 발생 및 가해상태

고추 진딧물은 전생육기간을 통하여 발생하는데 빠른것은 20회 늦은 것은 9회정도 발생한다. 성충 및 유

2. 방제방법

1) 발생초기에 메타유제, 피리모수화제, 오트란수화제 등을 살포한다.

2) 약제살포시 한약제만 계속 살포하는 것보다 타종의 약제와 교호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 <끝>

農水축산신보사 刊 畜產法典

- (신) 축산물의 식량화, 축산입국의 당위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때에 축산 관련업계 및 양축인들의 좋은 경영지침서가 될 畜產法典이 農水畜產新報(代表理事·韓南錫)부설 農水畜產出版社에 의해 간행되었다.
- (간) 축산전문 법전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을 봤 이 법전에는 축산에 관련된 법(시행령 시행규칙) 대통령령·농수산부령·훈령·예규·고시·주요행정지시·공고등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결들여 각 축산단체의 정관 및 규정·축산 세무 상담이 수록되고 관련산업주요법령들이 전문·발췌·집대성 되어 있다.
- (안) 농수산부 축산국에서 감수를 맡은 이 법전의 주요 수록 내용은 축산기본법령·가축위생관련법령·낙농·초지·사료관리·축산물 가공처리·축산행정·기타주요관련법령 등이다.



(국판 986페이지, 양장, 케이스入り, 가격 2만5천원)